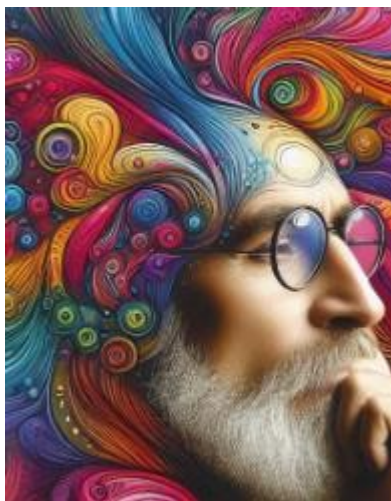


Alma



선쿠라이터 매거진 2025년

6월호

필리페 알렉산드르 데 안드라데 사 모우라

Filipe@FilipeMoura.com 선쿠라이터 무브먼트

#선구작가

텅 빈 밤,
영혼은 침묵과 공허함을 메아리칩니
다.

소용돌이치는 생각, 갈 곳 없이 갇힌
공기, 질식할 때까지 숨을 쉰다.

시간도 없고, 장소도 없고, 그림자
속에서 기다리고, 빛도 없고, 공기
도 없이 존재합니다.

위장된 외모의 그림자 속에서 나는 칠해지고 실제로 변해갑니다. 의식이 없으면 나는 소리의 깊은 마음속에서
나 자신을 잃습니다.

조각조각 부서져 안개처럼 증발하는 생각들. 삶은 투명하게 흐르고, 메신저 없이 나 혼자, 나 자신과 함께 흐름
니다.

그림자가 비밀을 속삭이고 차가운 달이 따뜻
해집니다.

말은 메아리 없이 공허하게 춤을 춘다. 나처럼 목적지가 없는 느슨한 편지, 꿈을 쓰는 법을 잊어버린 펜
.

나는 읽지 않고 글을 쓰고, 단어는 찢어진 종이의 마법 속에서 춤을 춥니다. 빛과 그림자가 얹히고, 잉크
에 숨겨진 비밀.

잉크의 꿈, 희미해지는 기억, 불안한 생각의 흐릿함. 형체 없는 낙서, 정신의 춤 속에서 사라진 흔적.

저장된 기억, 현재에서 다시 태어
난 미래, 묻힌 미래.

나는 이미지가 없는 거울이고, 영혼이 깨지고, 시간에 반사되지 않는 거울입니다. 나를 볼 때면 나는 거울에 비
친 나 자신, 즉 융해되는 유령에 무너집니다.

연기가 공중에서 춤을 추고 생각
이 돌아가고 메아리가 울려 퍼집
니다.

시인은 글을 쓰지 않고, 눈물이 말이
되고, 침묵이 말을 합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마음에는 느껴지는 영혼. 아무도 듣지 못하는 비밀을 속삭입니
다,
어쩌면 영혼은 우리 존재의 메아리에 불과할지도 모르죠.

시간의 흔적 위에서 나는 광기가
피어나는 미소를 지으며 거꾸로
달려갑니다.

나는 의미 없이 내가 느끼는 그대로입니다. 어쩌면 의미는 전혀 없고 그저 후진 기어, 공허함으로의 도피일지
도 모릅니다. 침묵 속에서 말은 느슨하고 얽매이지 않는 나의 피난처입니다.

때때로 나는 길을 잃은 우주, 별이 없는 밤, 숨어 있는 달이 되기도 합니다. 나는 아무도 나를 찾을 수 없는 어
둠 속으로 도망치지만, 어쩌면 그들이 나를 발견할지도 모른다.

내 비명은 내 자신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춤추는 목소리의 메아리입니다. 아무도 듣지 못하지만 내 안
에서 큰 소리로 비명을 지르며 정적을 뚫고 나를 뚫고 들어옵니다.

소용돌이치는 시간, 그것을 짓
누를 과거도 없고, 현재도 사
라져 버립니다.

그 말이 날개도 없고 목적지도 없는 바람이
되길,
무한 속에서 길을 잃은 하나의 생각이길.

내 그림자가 나를 비추고, 디테일이 없는 빛, 찰나의 반사가 나를 비춥니다. 때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
지만 항상 그곳에서 햇빛을 받으며 춤을 춥니다.

내가 쓰지 않는 글은 나를 질식시킵니다,
읽히지는 않지만 내 마음속에서 춤을 춥니다. 운율도 없고, 생각도 없이 머릿
속에서 춤을 춥니다.

밤의 고요함 속에서,
마음속의 메아리가 춤을 추고 말이
살아납니다.

세상은 우리가 꿈꾸지만 쓰지 않는 시입니다. 나는 말 없이 글이 춤추는 우주에 살고 있습니다.

글자의 우주에서 단어는 사랑으로 춤을 춥니
다. 소네트가 탄생합니다.

피아노 위에서 울부짖는 영혼
은 고통과 멜로디와 사랑을 울
립니다.

공허함이 내 가슴에 메아리친다,
어둠 속에서 춤을 추는 그림, 나는 달없는 밤
입니다.

영혼의 어둠 속에서 빛은 평온함
을 잃었습니다. 당신의 인도하는
별만이 우울함 속에서 빛납니다.

침묵은 군중 속에서 외치고 목소리는
방향없이 울려 퍼집니다. 밤의 말, 어
둠 속의 진실.

말은 나의 피부이고 글자는 나의 피입니다. 종이는 내가 숨 쉬는 우주입니다. 글을 쓰지 않으면 나는 공허하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황혼 속에서 나는 춤추는 빛이고 포용하는 속삭임입니다. 광기와 존재의 무게 사이에서 나는 무한을 씹습니다.

저는 펜을 든 미친놈입니다,
환상이 춤추고 자유로워지는 곳입니다. 종이가 소모
되고 잉크가 떨어지고
가슴을 태우는 눈물을 흘립니다.

글을 쓰지 않으면 나는 시간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말이 사라지고 침묵이 나를 짓누르는 곳에서 나는 멈추고 정체됩니다. 오직 글자로만 숨을 쉽니다.

단어 하나하나가 맥박이고 문장 하나하나가
숨 쉬는 공기입니다. 그것들이 없으면 나는
공허함에 무너집니다.

말하는 외모, 지나가는 세월,
나를 짓누르는 감정들.

거짓말을 하는 마음, 시선을 꿰뚫
는 시선, 때때로 내가 죽는 곳.

물방울이 우주로 변하는 글쓰기의 바다에서 나는 사이렌 노래를 부르는 가사에 난파됩니다. 최면에 걸린 나는 끝없는 구절 속으로 가라앉습니다.

내 여정은 항구 없는 배, 바다를 선택하는 난파선입니다. 항해하는 것은 사는 것이고, 세계를 달리는 것은 꿈꾸는 것입니다.

나는 영혼을 갈고 닦는 사람처럼 잉크를 준비합니다. 나의 피, 나의 말, 끝없는 문장으로 벌이는 전쟁. 나는 결코 이기지 못하지만 계속 나아갑니다.

공허한 생각 속에서 나는 길을 잃는다,

내 안식처가 아닌 곳에서.
상상을 넘어 침묵은 친구입니다.

시간 속에서 길을 잃었다가 공간에서
발견하고, 나는 빙글빙글 돌고, 아이디어
가 왔다가 사라집니다.

나는 내가 느끼는 모든 것이지만, 문장을 형성하기 위해 춤을 추는 느슨한 단어로 나를 비웁니다.... 의미?
아마도 혼돈 속에서만 가능할 겁니다.

생각이 사라진 광활한 공허함 속에서 나는 우주에서 춤추는 생각들 사이에 매달려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
다.

침묵 속의 마음,
숨소리도 없이 갇힌 공기 속에서 사
랑은? 바람 속에서만.

단어들은 허공에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내 것도 아니고 네 것도 아니고 바람의 것이다. 그 리듬에 맞춰 나는
허공에 녹아드는 말들 속에서 나를 잃어버린다.

나는 자유롭지만 자유에 묶여 있고, 묶여있는 운명,
내 자신의 불행, 내 운명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정맥에서 잉크가 흐른다,
빈 종이 위에서 춤추는 예술이 탄생
한다.

바다처럼 흐르는 생각, 단순함과 복잡함 사이에서 춤을 추는 단어들. 이성엔 없지만 영혼이 담긴 문구.

단어들은 혼돈 속에서 춤을 추고, 내가 잡기도 전에 충돌하고 도망칩니다. 나는 그들에게 날개를 달라고 요청하
지만 그들이 내게 남기는 것은 침묵뿐입니다.

예술에서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싶었고, 먼 하늘을 날았고, 결국
당신은 여기에있었습니다.

나는 추락의 광기를 끌어안고 영혼의 절벽 위를 날았어요. 나는 넘어졌을 때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충격의 메아리와 현기증만이 저를 지켜주었습니다.

외로움아, 내게 손을 내밀어라. 당신은 노조가 분리되었지만 영혼에는 항상 남아있는 형제입니다.

영혼의 흔적, 그들은 상처를 입히
고 존재를 공격합니다. 밤이 밝아
집니다.

당신의 시선, 사랑의 바다. 나는 당신을보기 위해 배에서 뛰어 내렸고 가라 앉았습니다. 헤엄치고 헤엄쳐
도 널 찾을 수 없었어.

잉크로 얼룩진 단어들이 혼돈 속에서 춤을 춥니다. 침묵이 울려 퍼지고 내 조각들이 녹아내립니다.

나는 침묵의 목소리, 글이 울려 퍼지
는 외침, 소외된 소음입니다.

나는 영혼이 숨기고 있던 것을 단어에서 훔쳤습니다. 나는 그 의미를 벗겨 내고 무게를 찢어 냈습니다. 그
고통을 찾았을 때 그것은 햇볕에 그림자처럼 도망쳤습니다.

나는 단어를 뜯어냈다,
노출된 피부, 영혼에서 쏟아져 나오
는 느낌.

생각은 영혼을 두드리는 망치입니다. 그냥 흘려보내지만 그 전과 후의 무게는 무겁습니다. 감정요? 그냥...
감정일 뿐이죠.

생각은 흩어지고 구름은 푸른 하늘
을 가로지르고 나는 신을 만납니다.

저는 그저 지휘자일 뿐이고, 잉크는 종이 위에 쏟아지는 영혼입니다. 글쓰기에 의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글쓰기는 호흡이기 때문에 따라갑니다.

단어는 공중에 날아다니며 별과 함께 춤을 추고, 플림! 달빛이 사랑을 비춥니다. 그냥 존재하고, 관찰하고, 글을 쓰고... 그리고 침묵이 일어납니다.

시인의 영혼, 타는 듯한 고통, 삶에서 깨어나는 고집
스러운 고뇌. 인연은 멀어지고, 자유롭게 숨을 쉰다,
숨 막히지 않는 질식, 영감을 주는 시.

고독하게 흐르는 생각의 흐름은 나를 하나의 공허한 생각으로 이끌었습니다. 침묵 그 자체보다 더 고독합니다.

내 안은 비어 있고, 내 안은 가득 차 있습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순환이 춤을 추고, 가슴이 노래하고, 침묵이 비명을 지릅니다.

펜이 종이를 가로지르며 춤을 추고, 생동감 넘치는 스크래치를 만들어냅니다. 순간적인 존재와 느낌의 순간, 일어나는 일이 강조되는 순간.

저는 마치 칼을 휘두르는 사람처럼 펜을 잡고 고요함을 찢을 준비를 합니다. 그 순간의 한가함 속에서 담배에 불을 붙이고 빈 페이지에 또 다른 획을 긋기 위해 준비합니다.

제가 쓰는 단어 하나하나에는 제 가슴의 분노가 담겨 있습니다. 종이로도 풀어낼 수 없는 내 영혼에 갇힌 이야기들.

펜이 춤을 추고 잉크가 흐르고 증오와 사랑,
독이 상처를 입히기도 합니다.
그것은 끝이 보이지않는 채로 환영하거나 밀어냅니다.

시인은 언제나 옳습니다. 사랑은 순
수한 감정입니다. 이성은? 마음속에
만 있습니다.

오늘 나는 단어에 기대어 고요한 침묵을 만듭
니다,

나는 그 문구의 아늑함 속에서 잠이 든다.

시간이 작별을 고하는 인생의 교차로에서 우리는 엄청난 공허함을 발견합니다. 포기하는 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우주와 함께 흐르는 예술입니다.

그리움은 불가능의 바다를 향해하는 잃어버린 배입니다.
다. 눈먼 나는 욕망의 바람을 따라갑니다.

하늘의 난간 위에서 고독으로 하나
가되어갑니다. 헛된 마음.

신비를 향한 여정에서 비밀의 부재는 수평선에서 춤추는 일물처럼 단 순 하 면 서 도 복잡하게 드러납니다.

말은 침묵의 메아리로, 입으로는 비밀을 지키지만
마음은 바람을 향해 외칩니다.

두려움의 현기증, 침묵 속에 숨겨진
영광, 불 없는 불꽃.

지친 펜은
종이에 눈물을 남기고, 침묵하는 잉크를 남깁니다.

영혼의 공허함, 군중의 침묵, 혼
자가 아닌 군중의 침묵.

침묵의 무게는 오직 말만이 알 수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 글을 썼지만 결국 내 안에 남아있는 외로움을 위해 글을 썼습니다.

나는 말과 가벼운 구절을 숨결에
실어 나른다,

시가 날아다닙니다.

나는 말로 영혼이 조용히 지키고 마음이 간직하는 비밀을 밝힙니다. 눈물의 바다에서,
나는 말 속으로 뛰어들고 깊은 곳에 있는 나
를 발견합니다.

나는 내 영혼에 시를 쓰고, 고독은 나
를 잠잠하게 하고, 동료는 입을 다물
지 않습니다.

내가 멈추자 침묵이 말을 걸었습니다.
손에 펜을 쥐고 종이에 공허함을 담았습니다. 단어는
사라지고 본질만 남았습니다.

나는 시간을 뛰어넘어 춤추는 단어들을 멈추지 않고 씁니다. 시간은 도망가지만 나는 시간을 잡기 위해
글을 씁니다.

글쓰기라는 연금술의 구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느낍니다. 펜을 손에 쥐고 있을 때 비로소 마법이 일어납
니다.

공허함과 소리 사이에서 나를 찾아주는 단어들 속에서 나를 잃어버립니다. 아, 쓰여진 글의 메아리가 얼
마나 달콤한지.

글을 쓰면서 나는 나 자신을 잃습니다,
마침내 나를 찾는 영혼 속에서 말이 느껴집니
다.

말이 없으면 어둠이 나를 감싸안습니
다.
단어의 힘, 통과하는 빛.

보지 않고 느끼는 것,
숨겨진 신비와 왜곡된 것들을 바라
보는 것.

인생의 곡선 속에서 운명이 작용합니다. 시선이 교차하고 말이 충돌합니다. 순간과 무한 사이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사고입니다.

차가운 침묵 속에서,
영혼은 시를 읊조리고 심장은 갇힌
채 울부짖는다.

사슬에 묶여 있지만 날아다니는 단어들. 읽는 사람을 위해 쓰여진 글은 마음을 자유롭게 합니다.

바람의 숨결 속에서 시선은 영원한 순간
, 시간을 정지시킵니다.

시간은 역설적이게도 그 안에서 살고 죽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은 우리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글쓰기는 살아남지 않고 사는 것, 존재 속의 동화
같은 비행입니다.
그것은 시간 속에 숨어 있다가 글에
서 발견됩니다.

사랑은 불꽃입니다,
따뜻해지기도 하고 타오르기도 합니다. 고통
은 영혼에 남아 있습니다.

단어에 눈이 멀어 세상을 봅니다. 나는 그것들을 적고
깊은 곳에서 자신을 잃습니다. 명료함에 취하고 깊은
침묵에 빠집니다.

지금은 닫히고, 글은 공중으로 방
출되고, 차분한 맥박이 울립니다.

슬픔을 어떻게 글로 담아낼 수 있을까요? 슬픔은 글로 쓸 수 없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경험한
고통과 고뇌 속에 숨어 있습니다.

삶의 바다, 광활하고 푸른 희망 속
에서 슬픔은 희석됩니다.

단어는 슬프지도 죽지도 않고 조용히 기다리
며 우리가 만질 때 살아납니다.

말 속의 감정, 한 순간의 우주.

말은 마음속의 씨앗과 같아서 시간이 지나면 싹을 틔웁니다. 우리는 올바른 말을 찾지만 그 순간은 찰나
에 불과합니다. 결국에는 말하지 못한 것을 외치는 침묵이 항상 존재합니다.

무한한 곳에서 울려 퍼지는 목소리, 깨어나는 외침. 현실이 속삭이는 소리, 들리나요?

감정은 말이고, 시간에 남겨진 흔적이며, 기
록된 삶입니다.

말의 침묵 속에서 읽지 않는 사람은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여행합
니다.

안개 속에서
밤과 욕망이 춤을 추고 나는 멀리
서 명상합니다.

느낀다는 것은 산다는 것입니다,
감각이 탐색하고 영혼이 진동합
니다.

나는 혼자입니다,
혼자라는 존재의 메아리, 침묵이
비명을 지른다.

섬뜩하고 희귀한 내 존재의 중
심에서 나는 떠다니며 영혼이
잠수합니다.

존재의 침묵 속에서 고독한 사명이 일
어나고 허공에 메아리가 울려 퍼집니
다.

별들이 춤을 춘다,
빠르게 지나가는 구름, 모든 것이 덧없습니
다.

여기 나는 존재에 얽매어 그저 존재할 뿐입니다. 어둠 속에서

나는 선명함을 찾습니다,
그들이 많을수록 더 냉정해집니다.
침묵 속에서 영혼이 춤을 춥니다.

나는 나를 바라보고 글을 쓴다. 쉽
표와 마침표, 나는 짓고 파괴하고
벼랑 끝에서 다시 태어납니다.
나의 외침은 다시 짓는 것이다

내가 아닌 모든 나를 제외한 나, 단지 나, 나뿐입니다. 모든 것과 아무것도 아닌 것 사이에서 나는 지나가는 바
람입니다.

지평선을 바라보며 생각하죠... 당신이 여기 있군요. 정말, 당신은 여기 있습니다. 새벽의 고요함 속에서
당신의 존재를 확신합니다.

잊어버렸다고 생각하지만, 어쩌면 잊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기억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것
일 수도 있습니다.

무거운 생각들,
구름이 내리는 것처럼, 영혼이 우는 것처
럼.

당신을 느끼는 것은 만지지 않고 바람과 함께 춤을 추는 것과 같지만 내 영혼이 소용돌이 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달리고, 달리고, 길을 잃는다. 나는 그저 달리고 싶고, 목적지 없이 날고 싶어요. 자유가 내 발자취를 따라 춤을 춥니다.

글쓰기가 진동합니다,
글자들은 거대한 말의 춤을 추며
날아다닙니다.

심장은 몇 번이나 비틀거리면서도 춤을 추고 싶다고 고집할까요? 생각, 이상한 행위,
생각하는 것이 이상하다,
아니면 그냥 존재에 대해 생각하는 것?

낯설음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 보이지
않지만 너무나 분명한, 우리를 감싸는 낯설
입니다.

의지와 상관없이 명령을 받고, 마음은 매듭을 짓고
, 영혼은 침묵합니다. 자유,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
까?

영생, 살아 있고 지키고
있습니다. 결코 비어 있
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억으로 가득 찬 영혼을 가지
고 다닙니다.

나는 아이디어를 혼합하고,
희석하고, 분리하고, 다시 세
계를 창조합니다.

창작의 예술에서는 매일이 새로운 빈 캔버스입니다. 창조하고, 재창조하고, 다시 창 조 하 는 ... 상상의 무한한
출사위입니다!

창작은 세계로 가득 찬 공허함입니다,

무가 부재와 함께 춤을 추고, 상상은 침묵의 메아리
입니다.

우울한 운명,
시간이 짙어진 짐, 안도감 없는 숨결.

환상은 삶의 붓이고 진실은 캔버스입니다. 그림을 그리면 그릴수록 더 많은 길이 나타납니다.

생각에 잠기고, 짓밟히고, 찢어지고, 다
시 강인하게 태어납니다.

생각은 춤을 추고, 시선은 시간에 갇
히고, 기억은 영원합니다.

광활한 우주에서 길을 잃고, 공간은
넓지만 나는 땅이 부족합니다.

부재중, 나는 방황한다. 허공에
서 나를 찾고 메아리 속에서 나
를 잃어버린다.

나는 바람과 함께 춤을 추는 사람처럼 말과 말 사이를 방황합니다. 나는 올바른 것에 기대어 숨을 내쉬며 나를
놓아 버립니다.

상상과 현실의 상상 사이에는 비행이 있습니다. 완전한 비행의 감각으로 비행하는 것은 우리를 고양시키
는 예술입니다.

숫구치지 않고 응고되어 쏟아지는 액체... 영혼을 관통하는 신비로움.

매 순간 태어나고 다시 태어나는 존재인 우리는 시
간은 우리를 따라잡지 못하지만 앞으로 나아갑니
다.

나는 산들바람에 흔들리는 삶을 헤매고 있습니다.

기쁨과 불만족, 만족하더라도 헛된 것입
니다. 삶, 모순.

영혼의 춤, 그림자의 포옹, 가벼움과 무거움,
완전한 우아함. 태양인 존재, 지나가는 존재.

춤추는 산들바람,
불안한 마음이 만나고, 전진하는 빛.

빛나는 빛,
자신을 드러내는 존재, 영원. 영혼
의 반영.

회전하는 단어, 춤추는 생각. 생각의 반대도 시입니다.

말이 춤을 춘다,
매혹적인 구절에서 마법이 일어납
니다.

슬픔이 공중에 떠 있습니다,
자유의 날개를 펴고 마음속으로
돌아오세요.